

## 현대미술을 활용한 Art Therapy 작품사례

Art Therapy Through Modern Art: A Case Study

저자 : 장범순(Jang, Bum Soon)

세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jangbs9943@hanmail.net

본 논문은 2014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목차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내용과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미술치료의 개념과 배경
- 2.2. 미술치료의 특성
- 2.3. 심층심리학과 진단검사
- 2.4. 미술치료사의 역할과 자질

3. 현대미술의 개념과 활용방법

- 3.1. 현대미술의 개념
- 3.2. 현대미술표현 치료 활용방법

4. 현대미술표현치료 분석사례

5.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미술치료는 그림을 매개로 심상의 투사를 통한 비언어적 소통과 억압된 심리를 저항 없이 표출하는 효과가 있다. 미술 활동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 대상자와 치료자 사이에 친밀관계를 맺어 통찰과 승화로 자아성장을 이루는 것이 미술치료의 본질이다.

미술치료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분석학, 개인심리학, 분석심리학 등 이론적 바탕이 되는 심층심리학을 고찰하였다.

미술치료사는 치료과정에서 인간중심의 격려를 통해 심리적 갈등과 상처를 겪는 대상자에게 치료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바로 미술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무의식적 표현 또는 과정과 행위의 유희성 그리고 오브제 활용과 수작업 등의 개념과 방식은 자발적 심상표현, 개성화와 자기표현, 유희성과 창조본능, 자존감 획득 등의 미술치료 특성과 부합되어 치료효과가 뛰어난 방법이다.

이 연구는 물질의 변화과정과 다양한 미술 재료의 이해와 함께 수작업의 기능 및 오감의 체험이 가미되고 H.T.P 진단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미술치료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의식적 표현, 격려, 통찰, 유희성

(Abstract)

Art therapy is a method of expression used as a therapeutic technique which projects patients' imagery to the outside of human inner mind through visual exchanges of patients and therapist interaction. Psychoanalytic method, a personal psychotherapy and analytic psychology is examined in the theoretical levels for approaching to this art therapy.

Art therapy in practice includes some tools of mind such as: unconsciousness expressions and their procedures, hedonism, objets practices, handplaying etc. bringing from a vast number of modern art. These lead patients to recover himself gradually such as: voluntary imagination, personalization, self expression, hedonist and creative recovery, self confidence etc.

This introductive study provided some explication on evaluative and psychotherapy handplaying skills, materials and interventions appropriate to the clients' needs in the art, comprising the H.T.P. which could be used to assess brain damage and general mental functioning. By virtue of being a projective test, the results of the HTP are subjective and open to interpretation by the administrator of the exam.

They would use the creative process to help clients increase insight, cope with stress, work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increase cognitive, memory and neurosensory abilities,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hieve greater self-fulfillment.

**Keyword:** Unconsciousness Expressions, Encouragement, Insight, Pleasur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술치료는 심층심리학과 미술이 결합된 치료 기법으로 스트레스, 불안, 소외,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갈등을 완화시켜준다. 투사된 무의식적 심상을 표현하는데 이미지 언어인 미술이 유용하다. 또한 창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며 미술의 매력적 특성인 유희성은 의식과 무의식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이 있다. 미술 활동과정에서 정화와 통찰을 체험하여 자기 존중감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한편 미술치료의 과학적 바탕이 되는 임상 뇌 과학은 뇌의 여러 영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ohen & Carr 2011, p. xii).

카(Carr)는 미술치료 활동 중에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로 부터 나온 신경전달물질이 심리사회적 기능을 이롭게 하는 특수기능들을 촉진한다고 기술하였다(Cohen & Carr, 2011, p. xiv). 이렇게 미술치료 분야는 질적 연구, 즉 미술치료의 본질은 자기치유라는 심층심리학적 관점과 양적연구라고 할 수 있는 뇌 과학적 접근이 합세하여 정신의학 분야에 대체의학으로 구축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미술을 심리장애 치료를 위한 주된 매체로 사용하여 심층심리학 이론의 고찰과 현대미술 표현기법 활용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통합적 미술치료 기초이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학계와 출판계 그리고 미술치료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2. 연구 내용과 방법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강조한 융(Jung)의 자기화 개념, 통찰과 승화를 통한 자기형상화, 등의 분석심리학을 고찰하였다. 친밀관계, 전이, 격려 등 드라이커스(Dreikurs)의 개인 심리학 개념을 탐색하였다. 자발적인 시각적 투사, 이미지 언어, 유희성과 창조, 치유력 등의 미술치료 특성을 모색하고 현대 미술의 무의식적 표현, 유희적 요소, 과정과 행위, 오브제 활용과 수작업 방식들은 자발적 표현에 의한 자기형상화에 유용한 치료기법이라고 확신하고 현대 미술 개념에 따른 미술표현 활용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시작품과 현대미술 자료를 통해 현대미술 표현치료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치료 경계성 대상자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현대미술 표현방

법과 HTP 검사모델을 적용한 치료 분석사례를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미술치료 개념과 배경

프로이트가 자유 연상법으로 인간 심리를 해명한 심층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미술치료는 그림을 매개로 심상의 투사를 통한 비언어적 소통과 억압된 심리를 저항 없이 표출하는 효과가 있다.

환자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형상화 할 수 있다고 한 융(C. G. Jung)은 자기화, 즉 개성화는 참된 치유의 길이며 개인적 문제점들과 결합들로 부터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한다고 하였다(Riedel, 2000, p. 16).

그림을 매체로 한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을 주장한 나움버그(Naumburg, 2014, p. 11)는 환자의 자발적인 시각적 투사와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말보다는 그림으로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하며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환자의 사고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연상을 사용하듯이 미술치료에서도 자유연상의 과정은 각 환자에 투사되어진 자발적인 미술(Spontaneous art)을 통해 적용된다고 하였다.

미술치료에서 통찰과 승화를 통해 자아성장을 이루려는 치료목적의 핵심은 자발적 표현에 의한 자기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화가이면서 미국의 미술치료 선구자인 크레이머(E. Kramer)는 인간사회가 존재해 온 이래로, 미술은 개인의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의 요구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미술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는 심리치료적 입장(art psychotherapy)이라기보다는 미술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미술치료는 본질적으로 자아(ego)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표현되며 미술의 힘은 정신적으로 회복하도록 촉진하거나 혹은 무능력해진 방어수단을 다시 재조정하는데 있다고 하였다(2007, pp. 7-8).

나움버그가 환자들의 무의식에서 표현된 상징적 내용 및 그림 과정과 대화를 중시한 반면, 크레이머는 미술 치료에서 미술의 입장과 미술 교육적 관점을 중시한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을 제시하였다(정여주, 2003, p. 17).

크레이머와 같은 시대의 울만(Ulman, 1961)은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미술치료 학술지”(Bulletin

of Art Therapy) 창간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그림을 치료의 매체로 활용하여 치료에 역점을 두는 나움버그 접근방식과 미술활동 자체가 치료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인정하고 치료대상자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는 활용을 권고하였다.

현대미술이 전개되어 개념미술, 추상표현주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 미술 교육자, 미술치료사들을 통해 조형의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새로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완성된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더 중요시 하였다(정여주, 2003, p. 26).

## 2.2. 미술치료의 특성

미술치료는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개성의 세계이며 체험을 통한 통찰과 정화가 목적이며 치료 대상자의 내면의 갈등과 억압의 원인을 이미지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승화를 통해 자아성장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특성으로 자발적인 시각적 투사, 이미지 언어, 놀이와 창조성, 치유력 등이 있다.

첫째, 자발적인 시각적 투사에 관하여 나움버그는 “미술치료는 언어화 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미술작품과 함께 결합해서 이미지들을 언어로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런 것은 결국 치료적 과정을 촉진한다.” 라고 하였다(Naumburg, 2014, p. 14).

크레이머는 “미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징들의 추상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불안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깊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현실에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한 방어기제가 약화될 수도 있는 모험을 한다는 두려움 없이 미술 경험들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고 설명하며 무의식의 자발적인 시각적 투사를 미술체험과 관련지었다(Kramer, 2007, p. 42).

둘째, 그림은 심상을 표현한 이미지 언어이므로 저항을 적게 받아 치료 대상자의 방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신적 외상들 특히 성폭력 같이 억압되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 그림에서는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남으로 심층문제 해결의 단서로 활용된다.

셋째, 유희성과 창조성으로서 미술치료의 관건인 본능적 표현욕구, 자발적 자기표현, 재미, 집중력 향상 등은 놀이 개념과 대부분 일치한다. 씨쇼어(Seashore)는 놀이를 표출의 기쁨을 위한 자유로운

자기표현이라는 이상을 향하는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했다(최성윤, 2017, p. 32. 재인용).

놀이를 재미로 규정한 호이징아(Huizinga)는 “놀이는 자발적 참여이지 명령에 의한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며 놀이에 빠져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며 놀이의 집중력 향상 기능을 암시하였다(김기정, 2013, pp. 28-33). 한편, 정신분석가 위니콧(Winnicott)은 “창조적인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놀이를 할 때 가능하다.” 라고 했다(최성윤, 2017, p. 25. 재인용). 이러한 견해들은 놀이와 미술은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은 정신병자의 작품이든 정상인의 작품이든 관계없이 놀이를 하고자하는 욕구, 상징을 창조하고자하는 욕구를 포함한 건강한 충동의 표명이다.” 라고 한 위너(E. Winner)는 미술의 유희성과 상징창조 욕구를 강조하였다(2004, p. 519). 나움버그는 억압에 의해 야기된 왜곡된 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미술에 미숙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미술이 오히려 더 생생하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Naumburg, 2014, p. 16).

마지막으로 치유력인데, 루빈(Rubin, 2008, p. 200)은 예술치료가 강력한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강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거리를 두고 조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며 비전과 언어적 표현 모두를 통해 경험을 바라보기, 고려하기, 포착하기가 가능해질 때 진정한 통찰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윌슨은 프로이드의 성적 욕구에 따른 심적 결정론에 반해 인간은 자발성이 있는 존재여서 의식과 무의식간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 심리장애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존감과 통찰 그리고 승화로 귀결되는 질적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신경과학과 뇌 과학의 진척에 따른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플란(Kaplan)은 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뇌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신과 신체가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임상 뇌 과학은 뇌의 여러 영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미술치료와 연관 지음으로써 임상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Cohen & Carr 2011, p. xii).

## 2.3. 정신분석과 진단검사

### 2.3.1. 자아 방어와 핵심 미술치료 개념

미술치료 접근방법의 기초로서 억압, 퇴행, 투사, 동일시, 승화 같은 자아 방어개념은 프로이트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자아와 원 초아 사이에서 원 초아 욕구가 강해져 생기는 불안감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의식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사전). 그리고 “정신분석학은 일단 심층의 문제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 문제의 반은 해결 된다고 본다.” 라고 과단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박승숙, 2001, p. 83).

미술치료에서 대상자의 내면을 밝힘으로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단서로 활용된다. 방어기제와 더불어 내담자와 치료자 상호간 치료동맹의 관점에서 친밀관계, 전이, 격려 상징, 통찰 등은 미술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정신분석용어사전).

친밀관계(rapport)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화로운 일치감, 즉 공감적이며 상호 반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프로이트는 친밀 관계를 전이의 원형으로 묘사했다. 그는 효과적인 전이가 확립될 때까지, 적합한 친밀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기다리도록 충고했다.

전이는 아동기 동안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느낌, 사고, 행동 유형이 현재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전이된 것을 말한다. 나움버그는 정신분석에서처럼 미술치료에서도 환자 자신의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는 능력은 항상 치료자와의 전이관계에서 일어난다. 환자가 무엇을 표현하던 간에 치료자가 자신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줄 때 환자는 종종 감히 말로 못하는 것을 이미지로 투사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Naumburg, 2014, p. 13).

격려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치료동맹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을 적용하여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을 발전시킨 드 라이커스(Dreikurs)는 인간은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비교 차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열등감을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심리적인 보상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보상을 하지 못하면 열등 콤플렉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해야한다. 격려는 아동에게 자존감과 성취감을 부여해 준다고 설명하며 격려는 통제성 칭찬과 달리 책임감과 노력의 향상 중심으로 격려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유안진, 김연진, 2003). 가정과 사회에서 이해와 격려 부재로 인한 치료대상자들의 여러 심리적 갈등을 미술치료가 부모 대신해서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정신작용으로 투사된 환자의 시각적 표현에서 심리 문제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미술치료를 하는 동안에 창조된 자발적인 그림들은 자주 상징적인 언어로서 기능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된다(Naumburg, 2014, p. 33). 상징적인 이미지는 프로이트가 소위 마음의 검열관(censor)이라고 부르는 억압으로부터 언어적 표현보다도 환자에게 더 쉽게 벗어나게 하며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Naumburg, 2014, p. 12).

### 2.3.2 진단검사

미술치료는 진단으로서의 가치와 치료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치료 대상자들의 그림에 투사된 내재화된 경험을 그림에 투사에서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그림평가 검사모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물화 성격검사 (DAP: Draw A Person)

나무그림검사 (Tree Test)

집, 나무, 사람 (HTP: House-Tree-Person)검사

동적 집, 나무, 사람 (KHTP: Kynatic HTP)검사

동적가족화 (KFD: Kinetic Family Drawings)검사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FCCD: Family Centered Circ)

빗속의 사람그림 (Draw-A-Person-in-The Rain)

풍경구성법 (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

학교생활화 (KSD: Kynatic-School-Drawing)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투사적 그림검사 중 하나가 벽이 개발한 집, 나무, 사람(House-Tree-Person)검사이다. 아동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쉽게 그려질 수 있으며 무의식의 활동과 연상 작용을 활성화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라는 점에서 채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신민섭 외, 2002 p. 17).

## 2.4. 미술치료사의 자질과 역할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치료 대상자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미술치료사는 업무 성격상 미술이론과 표현, 심층심리학, 상담원리 등, 미술과 심리 치료에 관해 지식을 갖춰야 한다.

루빈(Rubin, 2008, p. 208)은 미술치료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독창적인 미술치료교육, 임상감독, 자문과 연구를 하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진 예술매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해와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특히 주의력 결핍증 내담자의 치료과정에서는 각별한 인내심과 인성적 자질이 요구된다. 한편, 인간중심 접근법의 로저스(Rogers & Silverstone, 2009, p. 18. 재인용)는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담자에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공감적 경청, 둘째,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수용, 셋째, 내담자가 신뢰감을 느끼도록 진실하고, 솔직하고, 일치하는 태도이다.

루빈은 심리치료의 목표는 억압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이전에 숨겨졌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과 연관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 통찰을 얻도록 돕는데 있다고 하였다(주리에, 2014, pp. 30-31). 이러한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미술치료사는 대상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생기는 신뢰적 관계인 전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증세 정도와 능력에 따라 관찰하는 보조역할로 앞서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관계를 지키며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여 전이관계 형성에 힘써야한다.

환자의 전이를 추진시키고자하는 미술치료사의 노력은 마치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무의식을 풀어나가는 정신분석 과정의 핵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작업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통찰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술치료사는 반드시 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고 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미술치료사와 정신분석가의 공통점은 신중하게 계획된 전이로 이루어진 분석적인 관계를 내담자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다(Kramer, 2007, pp. 32-33).

미술치료사는 지지와 격려라는 동맹적 역할과 더불어, 치료과정에서 대상자 경우와 능력에 따른 유용한 기법을 선정 및 회기별 난이도 배분능력 등 관찰과 치료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야한다. 치료자는 환자들의 상징적인 그림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환자는 전문적인 미술가처럼 자신의 창작품에 대해 자기애적인 동일시로 발전한다고 나움버그는 주장하였다

(Naumburg, 2014, p. 13). 동일시를 통해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승화에 이르기까지 치료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이다.

### 3. 현대미술의 개념과 활용방법

#### 3.1. 현대미술의 개념

현대미술은 양식적으로는 인상주의가 시작이며 본격적으로는 다다이즘으로 꼽는 견해가 있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르와(E. Delacroix)는 “새로운 것은 정신에서 창조되는 것이지 묘사되는 자연에서는 아니다” 라고 했다(임영방, 1979, p. 35). 프로이트가 인간의 내면을 조명한 것처럼 들라크르와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미술이 인간의 외형과 의식보다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에 주목하였고, 사물 묘사에서 오브제의 조립이나 설치로 작업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였으며, 드로잉에서 신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에 역점을 두는 등, 미술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미술로 표현방식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한스 아르프(H. Arp)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찢어 버린 뒤 얼마 후 버려진 조각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상태에 「우연성에 따라서」란 제목을 붙였다(임영방, 1979, p. 163). 일종의 빠빠에 콜라주 형식이다. 마르셀 뒤샹(M. Duchamp)은 버려진 변기에다가 「샘」이란 명제를 달아 출품함으로써, 기성품(Ready made)도 예술 작품이 된다는 개념을 미술의 대상으로 삼아 개념미술을 창시하였다. 잭슨 폴록(J. Pollock)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 위를 걸어 다니며 흘리고 뿌리는 방식으로 행위와 운동을 개입시킨 파격적 표현으로 추상표현주의의 대표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호수에 흙으로 나선형 방파제를 설치한 로버트 스미드슨(R. Smithson)은 물질들이 시간이 가면서 소멸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자연회귀라는 문체의식을 제기하였다.

#### 3.2. 현대미술표현 치료 활용방법

현대미술의 무의식적 표현, 우연성, 과정과 행위, 오브제 활용과 수작업 등의 개념과 방식은 자발적 심상표현, 개성화와 자기표현, 유희성과 창조본능, 자존감과 통찰로 이끄는 치유력 등의 미술치료 특성과 부합되어 치료효과에 효용성이 뛰어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현대미술 표현방법 중에 드

리핑, 콜라주, 버닝, 만다라 기법을 선정, 활용방법을 고찰하였다.

미술에서 행위를 개입시킨 액션 페인팅의 창시자 잭슨 폴록은 막대기나 팔레트, 나이프를 이용해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선보였다.



[그림1] 잭슨 폴록의 드리핑 작품

폴록은 “내가 내 그림에 파묻혀 있을 때 나는 나의 일을 의식하지 못한다. 작품과 내가 서로 낮을 익힌 뒤에야 나는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 알게 된다” (Stangos, 1994, p. 273)라고 했다. 드리핑의 무의식적 표현은 미술치료의 특성에서 언급한 놀이의 몰두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한 행동에 주안점을 둔 나움버그(Naumburg, 2014, p. 34)는 “액션페인팅의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 근육 운동 지각을 언급하면서, 행동의 형태로 경험의 완화를 통해 ‘통찰’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림2] 브라크의 콜라주 작품

현대미술 작가 장 뒤뷔페(J. Dubuffet)는 예술은 광기나 비논리성에 그 본질이 있다고 믿는다. 표면

의 지적과정이 아니라 깊은 뿌리 끝에 더욱 풍부한 골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박승숙, 2001, p. 67). 현대미술이 전위성 때문에 난해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미술치료에서는 효용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콜라주는 기법이 단순하여 그림 그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저항 없이 접근이 용이하고 직감이나 감각 등의 비합리적 기능을 이용한 현대적 치료기법으로 자신을 개방시켜주고 심상을 발견하거나 개발시킬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관심과 흥미를 분명히 해주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치료기법이다(이근매, 아오키도모코, 2010, p. 16).

[그림2]는 브라크(G. Braque)의 <바이올린과 파이프>라는 콜라주 작품으로, 문자가 인쇄된 종이나 마분지를 조합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버닝 기법은 태우기 쉬운 재료, 종이를 주로 사용하여 타면서 생기는 비정형적 선을 조형요소로 삼는 기법으로 물질성의 이해라는 치료와 교육의 양면적 효과가 가능한 기법이다. 중국의 차이귀창(Cai Guo Qiang)의 경우, 화약을 재료로 하여 화약이 폭발하고 난 후 화면에 나타나는 기묘한 효과를 자신의 고유 표현기법으로 삼아 동양성이 드러나는 현대미술을 개척하기도 했다.



[그림3] 버닝기법 시작품, 장범순

[그림3]은 색 한지를 향불로 태워 일러스트보드지 뒷면에 콜라주한 작품으로 버닝기법과 콜라주기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해보았다. 보드지 뒷면에 인쇄된 문자도 조형요소로 활용했다.

만다라(Mandala)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원(圓)이다. 미술치료에서는 용이 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를 계기로 용은 만다라가 개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인간의 내적세계를 비추는 거

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정여주, 2001, p. 40, p. 43).



[그림4] 만다라 시작품, 장범순

[그림4]는 연구자 본인의 만다라 시작품으로 <스스로 돌고 도는 원리>란 제목으로 우주의 자연법칙과 생물의 순환법칙을 표현했다.

#### 4. 현대미술표현치료 분석사례

현대미술의 무의식적 표현, 유희적 요소, 과정과 행위, 오브제 활용과 수작업 등의 개념과 억압, 투사,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등의 심층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치료 경계성 대상자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드리핑, 콜라주, 버닝기법 등 세 가지를 선정하여 작업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5] 대상자 1의 드리핑 작품

[그림5]와 [그림6]의 대상자 1, 2의 드리핑 작업은 선호 연예인을 주제로 삼았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은 감정이입이 용이하여 표출에 저항 없이 심상표현에 임할 수 있는 소재이다. 표현에 대한 분

석은 H.T.P 진단법을 참고하였다.

[그림5]는 드리핑기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머리와 목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드리핑은 억제된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심리갈등 유형 중에 억압으로 내면의 침체는 외부로 어떤 식으로든 발산하여 주의력 결핍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면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림5]의 표현처럼 드리핑 표현은 갈등의 완화와 각성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 전술한 객순 폴록이 드리핑 작업을 하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그림에 파묻힌다는 그 무아지경의 경지가 대상자들과의 작업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림6] 대상자 2의 드리핑 작품

[그림6]의 그림에서 좁은 어깨는 억압으로 위축된 심리 상태를 드러내며 눈 부위에 집중된 발산은 억눌린 공격성을 나타낸다. 연예인에 대한 애착과 또한 한편 동일시에 대한 현실적 자각에서 오는 시기심이 표출된 양가성이 드러난다.



[그림7] 대상자 3의 콜라주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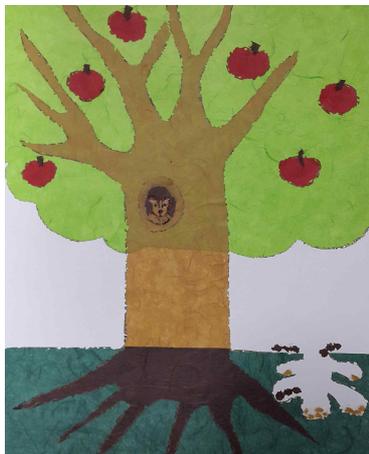


[그림8] 대상자 4의 콜라주 작품

[그림7], [그림8]의 콜라주 작업에서, 본 연구자는 대상자 3, 4에게 나의 30대를 표현하라고 했다. 이미 인쇄된 잡지를 찢어 가위질과 풀칠로 완성하는 과정이 붓과 물감 사용법의 부담과 묘사해야한다는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서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몰두하게 됨을 임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7]의 대상자3의 표현은 비교적 자기 존중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으로 대신한 인물에서 성취감과 여유로움이 보인다. 갖고 싶은 명품을 과다하게 인물에 근접시킨 표현에서 내재된 욕망과 열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8]의 대상자 4의 콜라주에서는 인물을 왼쪽 구석에 배치한 점과 머리와 얼굴에 하얀 색종이 조각으로 가려서 머리와 얼굴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자신감 결여로 위축과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9] 대상자 5의 버닝기법 작품

[그림9]의 대상자 5의 버닝기법 작품은 색 한지 재료를 향불로 태우는 작업과 콜라주가 결합된 표현으로, 태우기 과정에서 생기는 비정형적인 선과 그을린 자연색을 체험하는 기법이다. 기법과 더불어 나무그림검사를 시도하였다. 화면의 나무에 열매가 표현된 것은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불안을 보상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이구멍 안의 동물은 자신이 위축되어 일시적으로 퇴행하고 싶은 욕구로 해석되며 뿌리가 그대로 보이게 처리한 투명 표현은 현실적 판단력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례를 통해서 물질의 변화과정, 향의 냄새, 한지의 특성 등 다양한 미술 재료의 이해와 함께 수작업의 재미와 오감의 체험은 역동적인 치료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으로 종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향냄새를 통해 제사나 차례의식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또는 진술한 흠으로 된 방과제가 물에 의해 소멸되는 자연 회귀 개념과 향과 종이 가 타서 연기로 사라지는 표현을 연결, 대화와 소통으로 이어져 대상자의 통찰로 이르게 하는 현대미술 표현치료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H.T.P 진단검사까지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적 치료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 5. 결론

미술 활동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 대상자와 치료자 사이에 친밀관계를 맺어 통찰과 승화로 자아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는 미술치료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미술치유력의 과학적 바탕이 되는 임상 뇌 과학의 발달은 미술치료의 미래지향적인 현상으로 기대되었으며 미술치료 접근방법의 기초로서 억압, 퇴행, 투사, 동일시, 승화 같은 자아 방어이론은 여전히 치료과정에서 진단과 분석에 유용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아들러와 드라이커스가 강조한 인간중심의 격려는 심리적 갈등과 상처를 겪는 대상자에게 치료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바로 치료의 핵심이라는 통찰을 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의 무의식적 표현과 과정과 행위의 유희성, 그리고 오브제 활용과 수작업 등의 개념과 방식은 자발적 심상표현, 개성화와 자기표현, 유희성과 창조본능, 자존감과 통찰로 이끄는 치유력 등의 미술치료 특성과 부합되어 치료효과에 효용성이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을 문헌연구와 치료 분석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Cohen N. H. & Carr R. (2011). 미술치료와 임상뇌과학, (원희량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edel I. (2000). 용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정여주 역). 서울: 학지사
- Naumburg M. (2014). 역동적 미술치료, (전순영 역). 서울: 하나의학사
- Kramer E. (2007). 치료로서의 미술, (김현희, 이동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성윤 (2017).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놀이 개념에 기반 한 미술과(科) 교수-학습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 김기정 (2013). 문화유물론을 통해 본 호이징아 놀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학위 논문
- Winner. E. (2004). 예술심리학, (이모영, 이재준 역). 서울: 학지사
- Rubin J. A. (2008). 예술로서 미술치료. (김진숙 역). 서울: 학지사
- Rubin J. A. (2014). 이구동성 미술치료. (주리에 역). 서울: 학지사
- 박승숙 (2001). 미술치료사가 들려주는 미술의 힘. 서울: 들녘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분석용어사전
- 유안진, 김연진 (2003).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신민섭 외 (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Silverstone L. (2009). 인간중심 미술치료, (주리에, 이재현 역). 서울: 학지사
- 임영방 (1979).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스텐고스. N (1994). 현대미술의 개념, 성완경, (김안례 역). 파주: 문예출판사
- 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0). 콜라주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전자우편: jangbs9943@hanmail.net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7일

게재결정일: 2017년 6월 22일

3명의 익명(匿名)에 의한 심사.